

# '신선명품마을 취소 주장' 철회 촉구

### 김종대 위원장 등 20여명 기자간담회... "탄원인들 주장은 다수 주민들 의사와 달라"

무주군 설천면 덕유신선명품마을(구산 방재, 발한) 김종대 3대 위원장을 비롯한 주민 20여명은 26일 무주군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명품마을지정취소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주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8일자 언론보도에 명품마을 지정취소

탄원인들의 주장은 다수 주민들의 의사와는 다른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사실조차 허위이므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일부 주민들의 현위원장이 개인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사업자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다수의 의견에 따른 마을 운

영에 관한 소수의 불만 표출에 국가 사업인 명품마을 사업이 불모가 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마을 주민간의 의견대립을 민주적 절차로 해결보다는 관계기관에 각종 진정 및 민원을 제기해 왔으며 명품마을 지정폐지를 주장하는 탄원서에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및 증거

없이 현 위원장에 대한 불만과 의혹들로 일관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초대위원장의 결산과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빠른 인수인계로 마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서로 돕고 협동하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주민 모두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기자

## 전주덕진경찰서 호성파출소 연말연시 특별 범죄예방단

전주덕진경찰서 호성파출소는 26일 연말·연시를 맞아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특별 범죄예방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호성파출소는 시민경찰,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를 동원해 금융기관, 편의점, 금은방 등 현금 다액취급소 주변을 순찰했다.

특히 주간에는 금융기관 주변 순찰을 강화해 강·절도와 낱치기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있다.

또한 범죄 발생 시간대 및 장소를 분석하고, 주민의 순찰요청장소를 참고해 범죄 취약지 및 주요 목지점을 선정 후 가용경력을 집중적 투입해 다기능 목검문 실시, 음주운전 및 각종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유해성 호성파출소장은 "이번 특별 범죄예방단으로 주민의 체감안전을 향상시키고 편안하고 안전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익산시청 광장 소나무에 내려 앉은 눈. 26일 익산지역에 밤사이 내린 눈이 익산시청 광장에 식재된 소나무 위에 쌓여 있다.

## 전주 완산 서부파출소 청소년 탈선예방 총력

전주완산경찰서 서부파출소는 26일 연말연시 특별 치안활동으로 청소년들의 겨울방학을 맞아 들뜬 분위기 속에 청소년들의 탈선과 비행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시민연합회와 함께 서부신시가지 청소년 탈선우려지역에 집중순찰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캠페인은 청소년들에게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고 청소년들의 활동지역인 학원가·공원·놀이터·노래방을 상대로 가시적 순찰활동과 캠페인을 실시했다.

또한 서부신시가지 일원 PC방, 술집, 편의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 관계자들을 상대로 청소년들에게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상민 기자

## "3월 30일 이후 고준희양 객관적 단서 없어"

경찰, "3월 19일 진료·3월 30일 등교가 마지막"... 강력범죄연루 가능성 수사

전주덕진경찰서 수사과는 26일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3월 30일 이후 고준희(5)양 행방에 대한 객관적 단서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고양이 발달장애를 앓고 있어 지난 3월 19일 전주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을 확인했다.

경찰은 그동안 가족들이 진술을 토대로 실종 지점을 지난달 18일로 봤지만 가족들이 준희양을 방만한 혐의 등을 감안해 진술의 신빙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8월 31일 고양의 양의할머니 김모(61)씨가 인후통에서 위이동으로 이사를 할 때 당시 이삿짐을 옮긴 직원들이 준희양을 목격하지 못했고 이웃들의 목격담에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실종 시점을 특정하지 못했다.

사실상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행적은 앞서 말한 병원 진료 기록과 지난 3월 30일 어린이집을 끊기 전 등교한 것이 마지막이다.

이에 경찰은 실종 수색작업과 함께 고양이 강력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우려해 관련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 전주시 '성 평등 기금 지원사업' 공모

### 1억1100만원 지원... 내년 1월 대상 결정

전주시가 성 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향상을 위한 '2018년 성 평등 기금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 평등 촉진(다문화가정 성 평등 지원사업, 유아 대상 성 평등 교육사업, 성 평등 실태방안 용역사업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 기타 성 평등과 시정발전을 위한 사업 등 4개 분야에 대한 사업이다.

특히 매년 이자 수입만으로 지원된 기금사업이 이번 공모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을 지원받아 총 1억 1,100만원으로 사업비가 대폭 증가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소재하며 성 평등 문화 확산 및 성 평등 실현과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

단체다.

다만 동일 유사사업으로 국가나 다른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단체 및 법인 단체(법인)의 홍보 위탁사업,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등은 제외된다.

시는 내년 1월 전주시 성 평등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의 적합성, 수행기관의 역량,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 후 최종 지원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올 한해 4개 단체에 총 1,4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청소년 양성평등 교육, 여성의 행복한 세상 만들기 등 성 평등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왔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063-281-2341)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근 기자

## 전주농기, 플럼코트 재배 시범사업 결과평가회

전주시가 지역 농가에 자두와 살구의 중간교잡 품종인 플럼코트를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기로 했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는 지난 22일 플럼코트 재배 농업인과 관심 있는 농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플럼코트 재배 시범사업 결과평가회를 개최했다.

플럼코트는 농촌진흥청이 살구와 자두의 장점을 모아 교잡해 만든 새로운 과일로, 과육색과 육질은 살구와 비슷하지만 크기가 크고 새콤달콤하며 자두와 살구의 맛을 동시에 지녔다.

특히, 다른 과일에 비해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물질 함량도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돼 맛과 기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농가와 유통업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플럼코트는 우리 기후와 토양에 맞는 과일이어서 수입 농산물에

맞설 대체작목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전주시농업기술센터는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가의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해 플럼코트에 관심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재배기술 교육과 시설 지원, 모종 식재 등 기반을 구축해 왔다.

농업기술센터는 향후 3년 후 수확시기가 되면 시민들도 본격적으로 플럼코트를 맛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한춘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플럼코트는 새로운 과종이지만, 기존의 살구와 자두의 맛을 동시에 볼 수 있어 기대가 높다. 이번 평가회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농가의 신소득 창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재배기술 교육과 다른 과종과의 차별화된 유통을 위해 플럼코트만의 판매 전략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 같은 음식점 또 털다 덜미 잡힌 20대 구속

전주완산경찰서는 26일 절도 혐의로 김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식당에 들어가 11만 원을 훔치고 또 지난 19일 같은 음식점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음식점에 침입하려다 창문이 깨지며 울린 경보음에 놀라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주인 A씨는 경보음을 듣고 자신의 식당으로 갔다가 김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김씨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김씨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